

선수 수급, 지도자 부재, 시설 문제까지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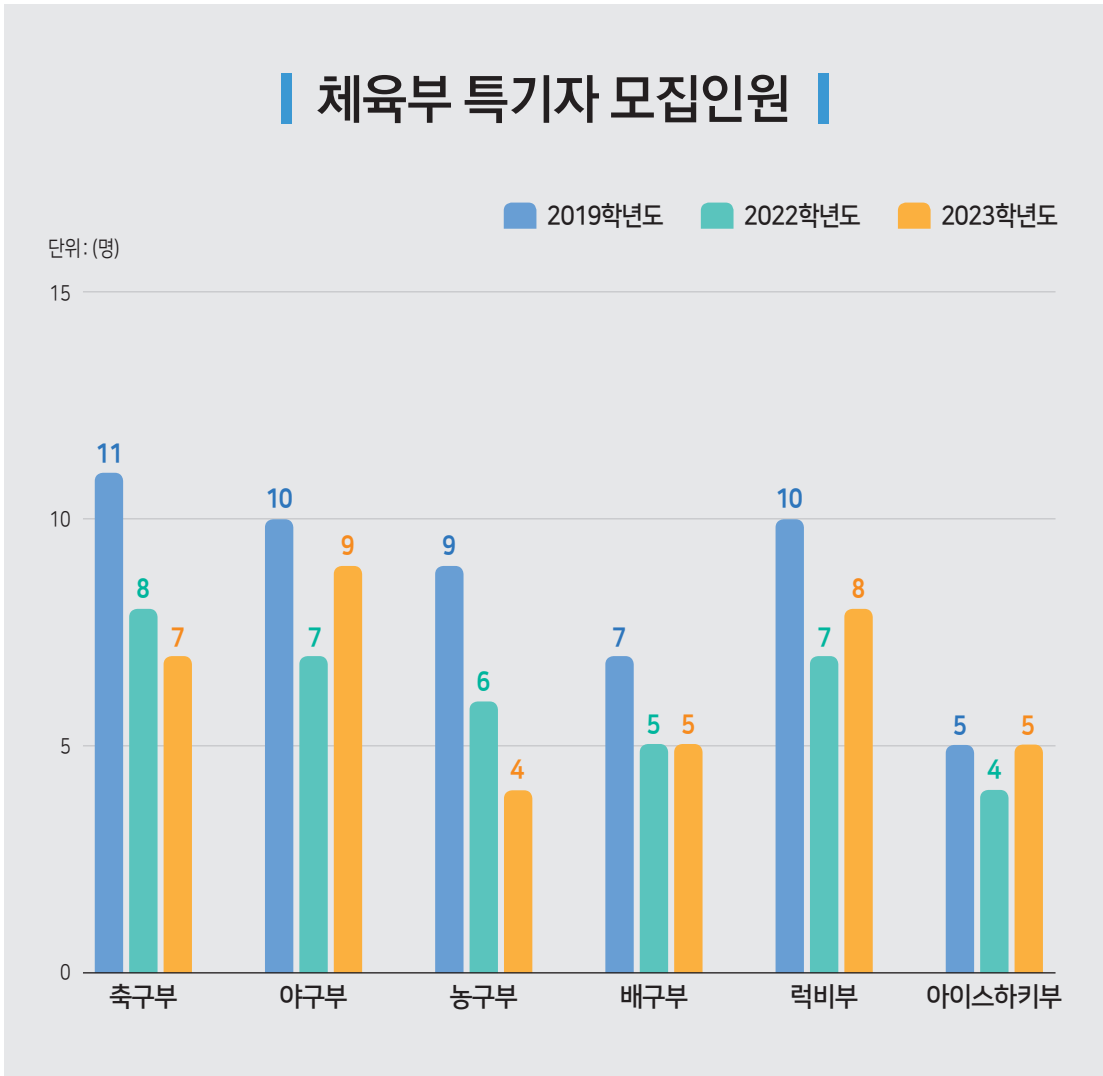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신문은 체육특기자 정원 감소에 따른 체육부의 어려움을 보도한 바 있다. 우리학교 축구부는 선수 부족으로 1, 2학년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상황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취재 결과 해당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체육부 역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였다. 우리신문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체육부의 현황을 짚어봤다.

계속 감소한 체육부 모집인원 선수 부족으로 대회 출전 불가

우리학교는 1950년대부터 체육부를 운영했으며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해왔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강채영(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가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땀으며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우리학교 체육부 출신 김진수(스포츠지도학 2012), 정우영(스포츠지도학 2009)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체육부는 운영난으로 선수 육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육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체육부는 총 16개로 ▲축구부 ▲농구부 ▲야구부 ▲배구부 ▲핸드볼부 ▲필드하키부 ▲아이스하키부 ▲럭비부 ▲배드민턴부 ▲체조부 ▲태권도부 ▲양궁부 ▲골프부 ▲쇼트트랙부 ▲육상부 ▲사격부가 있다. 그러나 체육부 사무실 측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부는 총 13개로 줄어들어 있었다. 운영난으로 ▲쇼트트랙부 ▲육상부 ▲사격부가 자연스레 사라진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체육부에서도 ▲선수 수급 ▲감독과 코치 부재 ▲훈련 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운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선수 수급 문제다. 선수 수급을 결정하는 체육부 특기자 인원은 매년 줄어든다. 체육부 특기자 모집인원은 지난 2019학년도에 ▲축구부 11명 ▲야구부 10명 ▲농구부 9명 ▲배구부 7명 ▲럭비부 10명 ▲아이스하키부 5명이였다. 반면 2022학년도에는 ▲축구부 8명 ▲야구부 7명 ▲농구부 6명 ▲배구부 5명 ▲럭비부 7명 ▲아이스하키부 4명, 2023학년도에는 ▲축구부 7명 ▲야구부 9명 ▲농구부 4명 ▲배구부



체육부 특기자 모집인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5명 ▲럭비부 8명 ▲아이스하키부 5명으로 축소됐다. 2019학년도에 비해 체육부 전체 인원이 20명 이상 감축된 것이다.

축구부는 지난해 선수 부족 문제를 호소했지만, 올해에도 선수 인원은 증원되지 않았다. 이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회는 18명의 선수 명단을 채우지 못해 출전하지 못했다. 축구부 김광진 감독은 “학교 측에 다른 학교와 같이 편입으로 선수 인원 충당을 요청했으나 소용없었다”며 “인원이 2배 차이나는 대학들과 경기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설명했다.

아이스하키부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학교 아이스하키부는 ‘2022년 103회 전국 동계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지난해에는 군입대, 부상 등으로 인원이 일부 이탈하면서 주요 대회인 ‘KUSF 대학아이스하키 U-리그’에 출전하지 못했다. 아이스하키부 주장 이진명(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는 “20명이 돌아가며 뛰는 시합을 현재 15명이 나눠 뛰고 있어 선수 개개인에 큰 체력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도자 부재, 훈련시설 미비 재정난과 예산 부족에서 기인해

선수 수급 문제 이외에도 감독과 코치가 부재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학 태권도부 지도자는 감독과 여자부 코치, 남자부 코치 총 3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우리학교에는 남자부 코치가 없어 감독이 코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야구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감독과 코치가 개인 사정으로 사퇴해 약 3개월간 지도자 없이 개인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시설이 미비한 점 역시 체육부 운영에 어려움을 보태고 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선승관 안에 있는 웨이트장은 현재 체육부 선수들의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운동량이 많고 운동 강도가 높은 체육부 선수들이 웨이트장을 사용할 시 기구가 빠르게 노후화되거나 망가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럭비부 등이 주로 훈련하는 국제캠 대운동장이 관리되지 못해 공터화된 문제는 우리신문에서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공터화된 대운동장, 예산문제로 제 역할 못해 /대학주보 제1686호(2022.05.25.)) 야구장 역시 펜스가 낡은 채로 방치

돼 있다. 펜스는 외야수가 수비하며 접촉하는 경우가 잦은데 펜스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훈련시설과 관련해 필드하키부 주장 신수정(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는 “공대 앞 필드하키장은 만인의 운동장으로 변했고, 오래된 구식 구장은 이미 군데군데 찢겨 있는 상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부족한 예산에서 기인한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체육부에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체육부 인원은 체육부에 배정되는 장학금 총액과 직결된다. 우리학교 체육부 학생들은 체육실기 장학 지급기준에 해당해 체육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장학금을 받는다. 학교 측은 일반 학생과 다르게 이들에게 등록금을 비롯한 훈련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 증원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감독과 코치진 고용 역시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학교 측이 우수한 지도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권도부 정 감독은 “선배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우리학교 태

권도부를 살리기 위해 실업팀에 있을 때보다 월급을 많이 삭감하면서 감독으로 부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장학금과 지원비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 문제를 체육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타 대학 체육부 학생들은 장학금과 지원비를 학교로부터 받지 않는다. 원주의 S 대학교 축구부 선수 A 씨는 “사실 대학교 축구부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이나 지원비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다”라며 “특히 경희대와 같이 좋은 학교에서 여러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입학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양대 8개 중 4개 폐부 결정 여러 이해관계 속 부작용 낳아 우리학교 역시 속단 어려워

체육부에 도래한 위기는 우리학교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일례로 한양대는 지난 2013년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체육부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한양대는 체육인들과 동문, 학부모 등의 거센 항의로 해당 결정을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결국 확정했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 ▲육상부 ▲유도부 ▲아이스하키부, 2023년부터 ▲체조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한양대 체육부는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배구부로 기존의 절반인 4개가 됐다.

한양대의 폐부 선언은 같은 종목 체육부를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 아이스하키 대학리그는 ▲고려대 ▲광운대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의 5개 대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한양대가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리그에 출전하지 않아 아이스하키 대학리그에는 4개 대학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우리학교가 출전하지 않은 지난해에는 3개 대학으로만 리그가 진행됐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학부 아이스하키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학교 체육부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선수들이다. 몸담고 있는 대학 체육부가 폐부될 시 당장 선수로서의 커리어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대학본부는 복잡한 체육부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방향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우리신문은 향후 체육부 운영에 대한 우리학교의 입장을 담은 후속 보도를 통해 우리학교가 모색하고 있는 앞으로의 체육부를 짚어볼 계획이다.